



## 인구 100억명이면 지구는 재앙

훼손된 세상



‘훼손된 세상’

롭 헹거벨트 지음

사람이 머무른 자리에는 늘 쓰레기가 있다. 휴가철이 지난 바닷가, 역동적인 게임이 펼쳐졌던 야구경기장, 대규모 관광객이 머물다 간 유허지... 그곳에는 늘 쓰레기가 널려 있다.

사람은 쓰레기를 만든다. 별 수 없다. 사람뿐인가. 모든 생명체는 어떤 식으로든 폐기물을 배출한다.

한 생물이 배출한 폐기물이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된다. 그것이 다시 폐기물이 되어 또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된다. 일반적인 순환 시스템의 모습이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이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 가 발생했다. 지난 두 세기 동안에 벌어진 이번 가운데 하나니. 지구는 본래 지나고 있던 자질능력을 삼십해버렸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급속하게 진행된 환경파괴 때문이다. 이는 급속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 산업화가 가져온 재앙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의 동 물 생태학 명예

현재 70억 인구 산업화 도시화에

폐기물 더미로 지구 자질능력 상실

인구 문제 해결해야 희망

교수이자 생물학자인 롭 헹거벨트가 ‘훼손된 세상’을 평했다. 저자는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인구 성장과 자원 소비의 상관성을 조목조목 짚어낸다.

그 최적의 방안으로 ‘인구 감소’를 제시한다. 1950년대 25억이던 인구는 현재 70억 명에 이른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부양 가능 인구수는 최대 90억~100억 명 수준으로 본다. 지금 추세라면 언젠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치에 도달하리라는 예상이 된다.

잠시, 인간의 삶과 역사를 되돌아보자. 인간의 삶은 무기물 자원과 에너지에 의존한다. 처음 인간은 식량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었다. 이후 물과 바람 그리고 동물의 에너지를 이용했다. 그러나 필요성이 떨어지면 점차 다른 자원으로 대체해가기 시작했다.

결국은 화석연료를 이용하기에 이르렀고, 지구온난화라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대규모 기근과 식량 부족은 사화 붕괴로까지 치닫고 있다.

저자는 이 모든 문제를 서로 연결돼 있다고 본다. 개별적으로 다뤄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공동 원인인 인구 증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과연 인구를 줄이는 것이 가능할까. 당장 우리지만 하더라도 저출산 탓에 여러 사회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이다.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출산 장려정책까지 쏙며 인구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인구수만 늘어거나 1인당 자원 사용량만 줄여서는 충분치 않다. 인구의 감소는 1인당 자원 사용량을 늘릴 수도 있고, 역으로 1인당 자원 사용량이 줄어들면 지구가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다.

저자도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단지 기존의 인구 조절책과는 전혀 다른 상상력과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인구와 연계한 폐기물, 지구온난화의 수요증가 문제를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결국 저자의 목소리는 간명하다. “현재 이 세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수많은 프로세스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지를 이해했으면 한다.”

·민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

## 식물도 섹스하고 냄새맡고 위험 느낀다

‘식물은 똑똑하다’

풀커 아르츠 지음



하고, 냄새를 맡으며, 반응 경험을 축적해 후대로 전해준다고 한다. 식물은 식물대로 생존하고 종을 이어가기 위해 최적의 변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이 생장과 경쟁, 생식 같은 진화에 필요한 도전을 하듯 이 식물도 동일한 활동을 한다. 더러 식물들의 놀라울 정도의 뛰어난 해결책은 알립기도 하고 익험해 보이기도 한다.

현대를 대표하는 식물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언 볼드윈은 이렇게 말한다. “문제는 식물이 똑똑하냐 그렇지 않느냐 아니라, 우리가 식물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똑똑하냐 그렇지 않으느냐.”

〈들녘·1만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김정은 시대 北 군부의 무기체계 변화 조명

‘북한군 시크릿 리포트’

유용원 외 지음



‘외부 적대세력’의 위협에 맞서야 하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이 국지적인 도발을 반복하고 군사력 강화에 몰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책에는 북한 미사일, 전차, 전투기, 핵정 등 각종 무기체계를 커려 사진과 제원을 포함해 도감 형태로 소개하고 있다. 이 밖에 군부와 군수산업 실태에 대해서도 상세한 도표를 실어 이해를 돋운다.

자자들이 책을 발간한 목적은 간단하다. 국방이나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처한 안보 현실을 이해하고 북한에 대한 막연한 장밋빛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데 방점이 놓여 있다.

〈플래닛미디어·1만98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각각의 사물들, 현실의 알레고리

### ‘검은 발목의 시간’

최미정 지음

현실의 알레고리가 돋보이는 최미정 시인의 첫 시집 ‘검은 발목의 시간’이 나왔다.

시인은 전남대 불문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2009년 ‘문학들’ 신인상으로 등단했다.

모두 63편 시는 서정지의 독특한 화법을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서정적 주체는 시의 뒤에 숨는 대신, 각각의 사물들은 이미지를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했다.

이때 서로 대립되거나 관계가 없는

검은 발목의 시간



사물은 세계의 역사 속에서 동등한 힘으로 맞물리게 된다. 이로써 맞불립을 통한 긴장을 예상치 못한 시적 상상력을 부여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힘을 선사한다.

해설을 쓴 박수연 평론가는 “그의 시는 의미의 불가능성이 아니라 의미의 현실을 현실의 양상 그 자체로 드러낸다”며 “이는 벤야민의 알레고리와도 같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문화들·1만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지나온 삶의 회고’

손형섭 지음

목포대학교 대학원장을 역임한 손형섭 교수가 자서전 ‘지나온 삶의 회고’를 평냈다. 손 교수는 살아온 지난 삶은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와 백을 같이한다. 일제시대와 해방의 격동기를 거쳐, 민족상잔의 비극인 6·25, 그리고 4·19의 거, 5·18 광주민중항쟁에 이르기까지 과란의 역사였다.

또한 여기에는 50년대 빙곤했던 삶과 200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의 풍요로운 모습도 담겨 있다. 최근에는 사회적 문명의 전환기까지 말 그대로



술 가쁘게 달려온 인생이었다. 저자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얇은 것도, 얕은 것도 적지 않다 고 고백한다. 안타까운 시절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표방하는 것은 세월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우리가 잡아 들어 있는 시간에도 꾸준히 흐르는 것이 세월이 아닌가. 그러나 언젠가는 세월이 정지된 종점에 내려 영원한 우리의 목적지에 다다를 것이다.”

〈금성정교출판사·1만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해방에서 5월 항쟁까지 숨가쁜 인생

신간

## 엄마와 아이 함께 읽으며 새 세상으로의 여행

### ‘그림책이 좋아서’

제님 지음



책 속에 소개된 그림책들은 교육적으로 꼭 필요하다거나 아이 인격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거나 하는 목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닌, 저자가 아이와 여려 이야기를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던 책들이다. 제님씨와 아이가 경험했던 행복 바이러스를 터뜨려 줄 책들인 셈이다.

“아이와 함께 그림책을 천천히 그리고 깊이 읽으며 아이의 마음을 만났습니다. 아이는 재미와 행복을 알아았습니다. 그것으로 뭔가 아닌가요?” 작가는 이 책을 통해 모든 엄마가 그림책으로 행복한 아이 만들기를 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하고 있다.

〈헤르츠나인·1만5000원〉  
/이보람기자boram@kwangju.co.kr



▲인나와디의 아이들=풀리쳐상 수상 작가 캐서린 부의 도시 빙곤 르포르타주의 걸작. 저자는 4년여간 만나와디에 직접 머물면서 사람들을 만났다. 여러 인물들을 수십 차례 인터뷰하고, 3000건이 넘는 공공 기록을 조사하며 당시에 꾸준히 흐르는 것이 세월이 아닌가. 그러나 언젠가는 세월이 정지된 종점에 내려 영원한 우리의 목적지에 다다를 것이다.”

▲망가진 세계=‘인문 서가에 꽂힌 작가들·밀라파르테 선집’ 1권. 1940년 2차대전 때 징집대에 코리에레 밀라 세리의 중군기자로 전선에 배치된 작가 밀라파르테가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투마니아, 우크라이나, 핀란드로 동부 전선을 취재하고 이 체험을 바탕으로 해방기의 이탈리아에서 발표한 소설이다. 말, 쥐, 개, 새, 순록, 페리의 6부로 구성돼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부서진 세계, 짐승만도 못한 인간 군상을 짐작하게 되葵는다. 〈빈번·1만6000원〉

▲덩 샤오핑 시대의 탄생=‘개혁개방의 아버지’라 불리는 덩 샤오핑 체제의 형성과정을 추적한다. 정치개혁 과정의 ‘평叛(平叛)’에 착안해 중국 공산당이 평叛을 통해 문화혁명 전후의 정치적 균열을 해소하고 이념적 통합을 이룩했음을 규명하고 있다. ‘평叛’은 문화혁명 이후 덩 샤오핑 개혁체제를 형성하는 직면적인 기제였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청바·2만5000원〉



▲기울=기울을 분석하고 배경 지식까지 꼼꼼히 알려 줌으로써 학습 이해를 도와주는 교과 연계 그림책. 다양한 정보를 재미있는 이야기와 아기자기한 그림으로 구성했다.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가을 날씨와 생활, 가을 풍경 등 아이들이 보다 쉽고 자연스럽게 교과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른숲주니어·9500원〉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커다란 물고기의 모자를 훔쳐 달았다는 깜찍한 작은 물고기 이야기. 올해 칼데콧 상 수상작으로, 작가 존 클라센이 선보이는 두 번째 모자 이야기다.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물고기 혼자서 어린이 독자들에게 이야기한다. 이야기 속에는 하늘색 모자를 슬쩍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커다란 물고기를 우습게 보는 자만심으로 가득하다. 〈시몽주니어·1만1000원〉  
▲이렇게 널 시랑해=사랑하는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담긴 그림책. 그림책 전체가 아이들의 나서로 가득해, 얼굴에 미



소가 절로 떠오른다. 알록달록 재미있는 아이의 낙서는 노도문인 배경 그림과 만나서 이야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 아이가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 설 수 있는 힘을 주는 든든한 버팀목인 엄마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솔수북·1만1000원〉

▲이흔 대비 비밀 노트=글쓰기가 싫어서 친구들하고 교활일기도 안 쓰는 4학년 재인이가 엄마, 아빠의 심각한 다툼에 급격한 심리 변화를 느끼 일기를 쓰면서 시작된다. ‘비밀 노트’에는 답답하고, 괴롭고, 속상한 재인의 마음과 부모님의 이혼에 대비한 당찬 계획들이 빠곡히 들어차 있다.

〈주니어RHK·9500원〉  
▲도레미의 신기한 모험=저학년 동화로는 보기 드문 스케일의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모험담을 담았다. 머리는 나쁜지만 용감하고 씩씩한 도레미. 어느 날 밤, 사람들의 꿈을 수집하는 꿈잡이를 만나 ‘절대로 깨지지 않는 머리’를 얻게 되지만 이상한 세계에 흘러 떨어지고 만다. 〈청비·9500원〉

